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129

JCCT 2023-1-17

청소년시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A Exploratory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Youth Facilities Visits

김신영*

Kim Sin-Young*

요약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청소년시설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학교 층위의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이 연구가 분석하는 자료는 국책연구기관과 전문 조사기관에 의해 수집된 전국단위 자료이며 이는 분석결과의 일반화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자면, 먼저 청소년시설 이용 수준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강건하게(robust)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응답자연령’과 ‘인권관련지식정보’였다. 즉 나이가 어리고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관심이나 정보가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시설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가족 및 학교 차원 변수들에서는 욕이나 체벌의 경험정도 및 인권침해 경험의 정도가 청소년 시설 이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시설이 소위 인권위기사황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쉼터(shelter)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소년시설이용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축적된 연구물 자체도 많지 않거니와, 대부분의 연구들이 특정 지역의 청소년시설 이용에 대한 기술적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구성하는 모형은 이론적 숙고와 문헌검토에 기반했다라기 보다는 연구자의 직관과 자료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음을 밝힌다.

주요어 : 청소년시설이용, 위계적 회귀분석,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Abstract This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potential factors in various levels that affect respondents' use of youth facilities. Those levels include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The data from 「2021 Youth Survey on Human Right Conditions」 will be analyz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several results. First of all, respondents' age and level of human rights related information strongly influence respondents' use of youth facilities. Secondly,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subjective well-being, abusive language and physical punishment from school faculty, and experi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schools affect the level of respondents' use of youth facilities. The order of effect sizes among significant variables are as follows; respondents' age, level of human rights related information, subjective well-being, abusive language and physical punishment from school faculty, and experi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schools.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model explain roughly 20 percent of whole variation of dependents variable.

Key words : Use of Youth Facilitie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2021 Youth Survey on Human Right Conditions

*정희원,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정교수 (단독저자)
(Univ of Iowa, 사회학 박사)
접수일: 2022년 11월 27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4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9일

Received: November 27, 2022 / Revised: January 4, 2023

Accepted: January 9, 2023

*Corresponding Author: kimsy@hycu.ac.kr

Dept. of Silver Industry, Hanyang Cyber Univ, Korea

I. 서 론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청소년시설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학교 층위의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들의 청소년시설 이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진행된 실태조사들이 대부분이며 어떤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가?라는 기술적 분석에서 진일보한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층위의 변수들이 그들의 청소년시설 이용수준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가에 대한 인과적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는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수많은 실증 연구들이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나 실상 자료의 수집과정이나 신뢰수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방법론적 원칙에 근거한 자료수집에 기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의 분석결과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 연구가 분석하는 자료는 국책연구기관과 전문 조사기관에 의해 수집된 전국단위 자료이며 이는 분석결과의 일반화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시설을 가리킨다. 청소년 시설의 역사는 1991년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본법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립 및 확충에 대한 법적 근거였으며 여기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권수련시설, 그리고 유스호텔로 구분하였다.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로 나뉘었으며, 전자는 다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텔로 구분되고 후자는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게 되었다. 청소년 시설이 갖는 의미는 청소년 시설은 학교에서는 개발시키기 어려운 청소년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환경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데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터전으로서 청소년

시설이 갖는 ‘공간’으로서의 중요성 및 현재 국내 청소년 시설이 보이는 문제점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응답자 특성 및 인구사회학 변수들에 의한 종속변수 평균비교를 수행한 후 본 작업인 청소년 시설 이용에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학교 층위의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밝혀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요약 및 향후 제언으로 논문은 끝을 맺는다.

II. 본 론

1. 이론적 배경

성장과정으로서 청소년기에 애착 형성과정에서 ‘공간’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허쉬[1]에 의해 강조되었다. 허쉬에 따르면 심리·사회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에서 청소년클럽이 청소년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 전자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안정적 정서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가구나 공간의 배치가 청소년에게 주는 편안함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관계와, 예컨대 참가 청소년과 지도자, 공간 및 시설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시설의 중요성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의 역할에서도 잘 나타난다. 청소년 시설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지식, 기술, 행위 등에 대한 좋은 예시는 청소년들의 발달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도자들의 정서적 지지는 긍정적 영향을 보다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2].

청소년 시설 관련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청소년 이용률 정체와 감소가 지목되고 있다[3] [4] [5]. 즉 ‘청소년 없는 청소년시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시설 가운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진행된 다수 연구들을 요약하자면 [6] [7] [8] [9] [10], 생활권 수련시설의 경우,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시설 및 이용 도구 부족,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되었으며, 다른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시설 이용 만족도는 지도자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설 이용 시 서비스 수준, 시설의 공간이나 설비 순으로 나타났다. 수련시설 이용 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불편함은

수련시설의 장비나 공간의 노후, 청소년문화에 부합하는 지속적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요약하자면, 청소년시설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청소년들의 욕구 충족 미흡과 시설편의 위주의 건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자가 시설 및 인력부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에 기인한다면, 후자는 공급자 중심의 시설 건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평균 비교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 당시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 학생이며, 교육통계연보(2020년)에 근거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을 통해 총 9,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면접조사와 우편조사가 병행되었으며 면접조사 비율은 약 30%였다.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포함) 총 340개 학교, 8,718명(1)에 대해 조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중/고등학생들만 자료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 사례수는 중/고등학생 5,786명이었으며 응답자 특성 및 종속변수 평균 비교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4점 척도(1= 한 번도 없음, 2= 일 년에 1-2회 정도, 3= 2-3개월에 1-2회, 4= 1주일에 1-2회 이상)로 측정된 청소년시설이용수준의 평균값은 1.27, 표준편차는 .706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5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청소년시설이용수준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성별로는 여학생 집단(평균 1.30, 표준편차 .740)이 남학생 집단(평균 1.25, 표준편차 .672)에 비해 청소년이용시설 이용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t = 2.340, p = .000, N = 5712$), 학교급 별로는 고등학생 집단(평균 1.23, 표준편차 .627)에 비해 중학생 집단(평균 1.32, 표준편차 .775)이 높게 나타났다($t = 5.048, p = .000, N = 5715$). 거주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평균 1.31, 표준편차 .738), 대도시(평균 1.26, 표준편차 .696), 읍면지역(평균 1.21, 표준편차 .60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6.975, p = .001$), 학업성적수준별로는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시설이용수준이 높았으며(상: 평균 1.33, 표준편차 .758; 중: 평균 1.27, 표준편차 .697;

표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종속변수 평균 비교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 Mean Comparisons of Dependent Variable

| 구분 | 사례 수(명) | 비율(%) | 종속변수 평균/표준편차 | N/ t(F)/ p | |
|--------|---------|-------|--------------|------------|-----------------------|
| 전체 | 5,786 | 100.0 | 1.27/.706 | | |
| 성별 | 남학생 | 3,007 | 52.0 | 1.30/.740 | 5,712/2.340 /.000 |
| | 여학생 | 2,779 | 48.0 | 1.25/.672 | |
| 학교급 | 중학교 | 2,876 | 49.7 | 1.32/.775 | 5,715/5.048 /.000 |
| | 고등학교 | 2,910 | 50.3 | 1.23/.627 | |
| 고교 유형 | 일반고 | 2,038 | 70.0 | | 특정 범주 사례 수 부족으로 분석 제외 |
| | 자율고 | 223 | 7.6 | | |
| | 특성화고 | 590 | 20.2 | | |
| | 특수목적고 | 58 | 1.9 | | |
| 지역 규모 | 대도시 | 2,196 | 37.9 | 1.26/.696 | 5,710/6.975 /.000 |
| | 중소도시 | 2,815 | 48.6 | 1.31/.778 | |
| | 읍면지역 | 776 | 13.4 | 1.21/.605 | |
| 가족 유형 | 양부모 가정 | 5,138 | 88.8 | | 특정 범주 사례 수 부족으로 분석 제외 |
| | 한부모 가정 | 523 | 9.0 | | |
| | 조손가정 | 39 | .7 | | |
| | 기타 | 71 | 1.2 | | |
| 학업 성적 | 상 | 1,568 | 27.2 | 1.33/.758 | 5,709/6.949 /.000 |
| | 중 | 2,512 | 43.5 | 1.27/.697 | |
| | 하 | 1,695 | 29.3 | 1.23/.701 | |
| 경제적 수준 | 상 | 2,904 | 50.3 | 1.25/.681 | 5,711/1.34 /.148 |
| | 중 | 2,258 | 39.1 | 1.29/.750 | |
| | 하 | 614 | 10.6 | 1.27/.699 | |

하: 평균 1.23, 표준편차 1.23),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6.949, p = .000$). 마지막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시설이용수준 결정요인 분석

이 연구는 청소년의 청소년시설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개인차원, 가족차원, 그리고 학교차원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문헌검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청소년시설이용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축적된 연구물 자체도 많지 않거니와, 대부분의 연구들이 특정 지역의 청소년시설 이용에 대한 기술적 연구에 국한되어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구성하는 모형은 이론적 숙고와 문헌검토에 기반했다라기 보다는 연구자의 직관과 자료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음을 밝힌다. 첫 번째 모형(모형 1)에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응답자의 성별' 및 '응답자 연령', 그리고 개인 차원

변수인 ‘주관적 삶의 만족’, ‘정신건강상태’, ‘인권감수성’, ‘주관적 인권존중 정도’, ‘인권관련지식정보’, ‘양심종교표현의 자유’가 투입되었다. 두 번째 모형(두 번째 모형)에는 첫 번째 모형에 가족 차원 변수인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학력자본’, ‘부모로부터 욕이나 체벌 경험’, ‘가정에서의 학대나 방임 경험’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최종 모형(모형 3)에는 두 번째 모형에 학교 차원 변수인 ‘학생자치활동경험’,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선후배 괴롭힘경험’, ‘학교생활만족’이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개별 변수의 유의도, 회귀계수의 해석, 개별 변수 효과의 상대적 크기 비교, 그리고 해당 모형의 예측력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05이다. 분석결과는 표2에 제시되어 있다.

III. 분석결과

모형 1에서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응답자 연령’과 ‘인권관련지식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인권관련지식정보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시설 이용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의 상대적 효과크기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 변량의 약 12.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정된 R-square = .120). 모형 2에서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모형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응답자 연령’과 ‘인권관련지식정보’, 그리고 ‘주관적 삶의 만족’, ‘부모로부터 욕이나 체벌’, ‘가정에서의 학대나 방임’로 나타났다. 즉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응답자의 연령이

표 2.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Table 2.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 모형1 | | | 모형2 | | | 모형3 | | |
|--------------|----------|-------|------|----------|-------|------|----------|-------|------|
| | B | beta | S.E. | B | beta | S.E. | B | beta | S.E. |
| 상수 | 1.577 | | .155 | 1.484 | | .230 | 1.438 | | .493 |
| 성별 | -.029 | -.020 | .020 | -.017 | -.012 | .023 | .016 | .011 | .045 |
| 연령 | -.041*** | -.099 | .006 | -.048*** | -.115 | .007 | -.061*** | -.136 | .013 |
| 개인 층위 변수 | | | | | | | | | |
| 인권감수성 | .005 | .019 | .004 | .005 | .018 | .004 | .001 | .002 | .009 |
| 주관적 인권존중정도 | -.011 | -.029 | .006 | -.007 | -.018 | .007 | -.024 | -.062 | .014 |
| 인권관련지식정보 | .045*** | .101 | .006 | .049*** | .110 | .007 | .050*** | .109 | .013 |
| 양심종교 표현자유 | .007 | .013 | .008 | .004 | .007 | .009 | .013 | .022 | .019 |
| 정신건강상태 | .000 | .003 | .003 | 8.887E-5 | .001 | .004 | .003 | .017 | .007 |
| 삶의 만족 | .008 | .026 | .006 | .013* | .042 | .007 | .043*** | .126 | .013 |
| 가족 층위 변수 | | | | | | | | | |
| 경제적수준 | | | | -.007 | -.006 | .018 | .006 | .005 | .036 |
| 부모학력자본 | | | | -.014 | -.021 | .010 | -.003 | -.005 | .020 |
| 부모로부터 욕이나체벌 | | | | .019* | .039 | .008 | .007 | .013 | .016 |
| 의사결정시 부모님태도 | | | | .009 | .027 | .006 | .012 | .033 | .012 |
| 가정에서의 학대방임 등 | | | | .017 | .035 | .008 | .000 | -.001 | .015 |
| 학교 층위 변수 | | | | | | | | | |
| 학생자치활동 | | | | | | | .042 | .033 | .036 |
| 학교인권침해 경험 | | | | | | | .023** | .066 | .010 |
| 교사로부터 욕이나체벌 | | | | | | | .090*** | .101 | .026 |
| 선후배 괴롭힘 경험 | | | | | | | -.026 | -.043 | .017 |
| 학교생활만족 | | | | | | | -.004 | -.012 | .012 |
| 학업성적 | | | | | | | -.019 | -.019 | .030 |
| 사례 수 | | 5,465 | | | 5,078 | | | 4,852 | |
| adjusted R2 | | .120 | | | .213 | | | .298 | |

*p < .05, **p < .01, ***p < .001.

낮을수록, 인권관련지식정보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욕이나 체벌을 많이 받을수록, 가정에서의 학대나 방임을 많이 경험할수록 청소년 시설 이용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의 효과의 상대적 크기는 ‘응답자 연령’과 ‘인권관련지식과정보’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보였다.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 변량의 약 2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정된 R-square = .213).

최종 모형인 모형 3에서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모형 2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응답자 연령’과 ‘인권관련지식정보’, ‘주관적 삶의 만족’, 그리고 학교 차원 변수인 ‘교사로부터욕이나체벌’과 ‘학교인권침해경험’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인권관련지식 정보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로부터 욕이나 체벌을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학교인권침해 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 시설 이용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의 효과의 상대적 크기는 ‘응답자 연령’, ‘인권관련지식과정보’, ‘주관적 삶의 만족’, 그리고 ‘교사로부터욕이나체벌’이 ‘학교인권침해경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 변량의 약 29.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정된 R-square = .298).

분석결과를 종합하자면,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강건하게(robust)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응답자연령’과 ‘인권관련지식정보’였다. 즉 나이가 어리고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관심이나 정보가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 시설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가족 및 학교 차원 변수들에서는 욕이나 체벌의 경험정도 및 인권침해 경험의 정도가 청소년 시설 이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시설이 소위 인권위기상황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쉼터(shelter)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IV. 토론 및 결론

이 연구는 ‘어떤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조사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응답 청소년들의 어떤 특성이 청소년 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가 주는 함의는 작지 않다. 특히 청소년시설 이용 수준 자체가 매우 낮게 나타난 점,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시설 이용 수준이 낮아지는 점, 마지막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시설 이용 수준이 높아지는 점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끔 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시설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은 청소년들의 욕구충족 실패와 시설 편익 위주의 건축으로 인한 활용도 제한으로 알려져 왔다. 전자가 시설 및 인력부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에 기인한다면, 후자는 공급자 중심의 시설 건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시설의 문제점들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들은 건물 등 시설 개선 지원, 프로그램 개선, 청소년 지도자 지원, 홍보 및 예산 지원 등을 바라고 있다. 실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비좁은 공간 문제, 체육 활동 공간, 도서관 확보와 함께,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진로 및 학습 관련 프로그램 확보, 동아리 지원, 연령대별 프로그램 마련을 희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 활동 이수 보장과 학교와의 연계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

청소년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제안들이 있었으나,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 이용 수준이 애초에 매우 낮은 수준임을 밝혔으며,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들이 청소년들을 청소년시설로부터 가깝게 혹은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였다. 정책수립과 변경을 위한 근거기반연구로서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로 오게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직/간접적으로 밝혀냈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 [1] Hirsch, Barton J., A Place to Call Home: After-School Programs for Urban Youth. New York and London: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2005.

- [2] Rhodes, Jean E., The Critical Ingredient: Caring Youth-Staff Relationships in After-School Settings. In Gil G Noam.(ed.)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After-School Worlds Creating a New Social Space for Development and Learning (pp.145-16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4.
- [3] Youn Joonsun, Ryu Boyoung., “A Study on Youth Facilities Use and Improvement Plan: Focusing upon Youth Facilities in Yongin City”,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 8 No 3, pp. 56-67, 2010.
- [4] Ryu Jini., “A New Paradigm for Policies of Youth Facilities”, Future Youth Study, Vol 3, 10 No 2, pp.49-69, 2007.
- [5] Youn Joonsun, Chung Hyungyun, Kim Jihoon., “A Study on Youth Facilities Use and Improvement Plan: Focusing upon Youth Facilities in Sunnam City”,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 7 No 4, pp. 85-95, 2009.
- [6] Bae Joonhyung, Lee Jongguk, Kim Nakjung., “A Study of Sports Facilities Invigoration Methods by Analyzing Current Status of Youth Facilities”,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pp. 51-67, 2005.
- [7] Ryu Jini., “An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Youth Facilities and Basic Direction for Construction”,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 10 No 1, pp.27-36, 2012.
- [8] Hong Younggyun., “A Study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Youth Facilities Policy”,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 5, 10 No 4, pp. 79-88, 2007.
- [9] Cho Hyeyoung., “A Study on Invigoration Method for Youth Facilities Visits in Local Community”,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 10, No 4, pp. 141-155, 2012.
- [10] Cho Hyeyoung., “A Study on Future Directions and Meaning of Youth’s Visits of Youth Cultural Home”,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 7, No 2, pp. 17-29, 200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4,654명 중 5.9% (276명), 여자의 경우 총 4,615명 중 6.0%(27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교급별로 고등학교가 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중 특성화계고의 무응답률이 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응답자의 무응답률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 세부 비교에서는 서울이 8.5%, 세종 8.1%, 대구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ndnotes

- (1) 총 9,269명 조사되었으나 무응답자 수가 551명으로 나타나 총 단위 무응답률은 5.9%로 2020년 6.5%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COVID-19 이전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치이며, 2020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우편조사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위 무응답자에 대해